

농구의 계절이 돌아왔다

코로나19의 유행 탓에 사상 처음으로 한 시즌을 온전히 마치지 못했던 프로농구가 다시 시작된다.

프로농구 25번째 시즌이 9일 서울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서울 SK-울산 현대모비스의 공식 개막 경기로 첫걸음을 댄다.

'2020-2021 현대모비스 프로농구'라는 이름으로 맞이할 새 시즌은 내년 4월 6일까지 약 6개월 동안 6라운드 10개 팀이 54경기씩, 총 270경기의 정규리그를 치른다. 이후 상위 6개 팀이 플레이오프로 우승팀을 가린다.

코로나19 영향으로 2019-2020시즌은 1997년 프로농구 출범 이후 처음으로 시즌을 제대로 마치지 못하고 도중에 종료됐다.

최강자를 제대로 가리지 못한 채 정규리그가 중단된 올해 2월 말 나란히 28승 15패의 성적을 낸 SK와 원주 DB를 공동 1위로 결정하고 어정쩡하게 시즌을 접어야 했다.

이 때문에 새 시즌은 다시 진정한 코트의 챔피언을 가리는 무대다.

이번시즌에는 전주 KCC의 라건아를 포함한 10개 구단 외국인 선수 20명 중에서 15명이 올 시즌 KBL 데뷔 무대를 갖는 새 얼굴이다.

KBL 내일 개막...월요일도 경기 개최 SK 최강 평가속 인삼공사 등 도전장 외국인 선수 20명 중 15명이 새얼굴

현대모비스 손 루, 인천 전자랜드 헨리 심스, 부산 kt 마커스 데릭스, 안양 KGC인삼공사 얼 클락 등 미국프로농구(NBA)에서 뛰 수준급 선수들이 많아 올 시즌 외국인 선수는 상향 평준화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FA 시장에서는 지난 시즌 도중 현대모비스에서 전주 KCC로 트레이드됐던 '최대어' 이대성이 오리온에 동지를 들었다.

2018-2019시즌 통합우승팀 현대모비스는 센터 장재석을 비롯해 가드 이현민과 김민구, 포워드 기승호 등 즉시 전력감을 영입하는 등 팀마다 전력 보강에 공을 들였다.

팀 전력을 들여다볼 때 올 시즌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는 SK다.

SK는 6일 열린 개막 미디어데이에서도 7개 팀 사령탑으

로부터 우승 후보로 지목받았다.

NBA 출신 클락과 라티비우스 윌리엄스를 뽑은 인삼공사는 SK의 독주를 견제할 대항마로 꼽힌다.

라건아, 이정현, 송교창 등이 버틴 KCC와 팀 리빌딩에 박차를 가하는 현대모비스, 이대성을 영입해 KBL 컵대회 초대 챔피언에 오른 오리온도 기대감을 갖게 한다.

한편, 새 시즌도 코로나19 탓에 일단 무관중 경기로 시작한다. 다만, 이번 시즌에는 월요일 경기도 편성해 팬들은 매일 농구 경기를 시청할 수 있게 됐다. 평일(월~금요일) 1경기, 토요일에 3경기, 일요일에는 4경기가 열린다. 평일에는 오후 7시에 경기를 시작하고 주말에는 오후 2시와 6시로 나눠 개최한다.

2016-2017시즌부터 매해 12월 31일 밤에 열리는 KBL의 히트상품 '농구영신 매치'는 안양체육관에서 인삼공사-DB의 대결로 벌어진다.

코로나19와 관련해 정규 경기가 50% 이상 진행됐을 경우 순위를 결정하고 플레이오프를 치르며 50% 미만 진행됐을 경우 취소 시점 기준 순위를 적용하되 플레이오프는 치르지 않는다.

/연합뉴스



LA 레이커스 '1승 남았다'

4차전서 마이애미에 102-96 승...10년만의 NBA 챔피언 등극 눈앞

LA 레이커스가 10년 만의 미국프로농구(NBA) 챔피언 등극에 1승만을 남겨뒀다.

레이커스는 7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의 어드벤처스 아레나에서 열린 2019-2020 시즌 NBA 챔피언결정전(7전 4승제) 4차전에서 마이애미 히트를 102-96으로 물리쳤다.

1-2차전 연승 뒤 3차전에서 지미 버틀러의 트리플더블을 앞세운 마이애미에 일격을 당했던 레이커스는 반등에 성공, 3승 1패를 만들며 10년 만이자 통산 17번째 우승을 눈앞에 뒀다.

2012-2013시즌 이후 7년 만의 우승에 도전하는 마이애미는 어깨와 목 부상으로 1-2차전에 나서지 못했던 빅맨 뱀 아데바요가 돌아왔으나 3차전의 분위기를 이어가지 못하며 1승 3패에 몰렸다.

22-27로 뒤진 마이애미가 2쿼터를 시작하며 덩컨 로빈슨의 자유투 3득점과 켈드릭 년의 3점포로 역전에 성공한 뒤 역타락뒤러하는 양상이 이어졌다.

전반 49-47로 박빙의 리드를 지킨 레이커스는 3쿼터 중반 견고한 수비와 르브론 제임스의 외곽포를 앞세워 주도권을 틀어쥐려 했지만, 마이애미도 제이 크라우더와 로빈슨의 3점 슛 등으로 맞불을 놓으며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레이커스는 3쿼터 막바지 앤서니 데이비스의 자

유투 4득점에 힘입어 75-70을 만들고 4쿼터를 맞이했으나 격차가 크게 벌어지지 않은 채 팽팽한 흐름이 계속됐다.

승부처에서 레이커스는 켈타비우스 칼드웰-포프와 데이비스의 활약 속에 치고 나갔다.

중요 2분 58초 전 제임스의 정확한 패스를 받은 칼드웰-포프의 3점포가 터졌고, 이후 마이애미의 공격을 제한한 시간 위반으로 묶은 뒤 칼드웰-포프가 3점 슛 라인에서부터 쏜살같은 돌파로 2점을 더하며 2분 2초를 남기고 95-88로 벌렸다.

중요 39.5초 전에는 데이비스가 3점포를 터뜨려 100-91이 되면서 승패의 주는 레이커스 쪽으로 기울었다.

마이애미는 31.5초 전 버틀러의 덩크로 희망의 불씨를 살려보려 했지만, 20초 전 공격에서 버틀러의 슛이 데이비스에게 막히며 힘을 잃었다.

제임스가 28점 12리바운드 8어시스트, 데이비스가 22점 9리바운드에 블록슛 4개를 곁들여 어김없이 승리에 앞장섰고, 칼드웰-포프가 15점 5어시스트를 더했다.

마이애미에서는 버틀러가 트리플 더블에 어시스트가 하나 모자란 22점 10리바운드 9어시스트를 올려 분전했으나 승리로는 이어지지 못했다. 두 팀의 5차전은 10일 오전 10시 열린다. /연합뉴스



LA 레이커스의 르브론 제임스(왼쪽)와 마이애미 히트의 지미 버틀러가 6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레이크 부에나 비스타에서 열린 2019-2020시즌 미국프로농구(NBA) 챔피언결정전(7전 4승제) 4차전에서 리바운드 볼을 다투고 있다. /연합뉴스

131위의 반란

포도로스카, 프랑스오픈 4강행 세계 5위 스비톨리나 2-0 완파



나디아 포도로스카(131위·아르헨티나·사진)가 프랑스오픈 테니스대회(총상금 3800만유로) 여자 단식 4강에 가장 먼저 진출했다.

포도로스카는 6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의 스타드 롤랑가로스에서 열린 대회 10일째 여자 단식 준준결승에서 3번 시드의 엘리나 스비톨리나(5위·우크라이나)를 2-0(6-2 6-4)으로 제압했다.

올해 23살 포도로스카는 메이저 대회 두 번째 출전 만에 4강까지 진출하는 이번의 주인공이 됐다.

포도로스카는 2016년 US오픈 1회전 탈락이 이 대회 전까지 메이저 대회 단식 본선의 유일한 기록이었다. 이번 대회에는 예선을 거쳐 이날 8강전까지 8연승을 내달렸다.

프로 선수들의 메이저 대회 출전이 허용된 1968년 이후 프랑스오픈 여자 단식에서 예선 출전 선수가 4강까지 오른 것은 이날 포도로스카가 처음이다.

이날 스비톨리나가 탈락하면서 이번 대회 1~3번 시드가 모두 4강 진출에 실패했다.

톱 시드 시모나 할레프(2위·루마니아)는 16강에서 탈락했고, 2번 시드 카롤리나 플리스코바(4위·체코)는 2회전에서 짐을 썼다.

포도로스카는 이어 열리는 이가 시비오네코(54위·폴란드)와 마르티나 트레비산(159위·이탈리아) 경기 승자와 4강에서 만난다.

트레비산 역시 이번 대회 예선부터 시작해서 8강까지 올라온 선수다. /연합뉴스

이민진, 이창호 꺾고 4연승...숙녀팀, 지지옥션배 우승

이민진이 4연승을 달리며 숙녀팀의 지지옥션배 우승을 이끌었다.

이민진은 지난 6일 서울 한국기원 바둑TV스튜디오에서 열린 '제14기 지지옥션배 신사 대 숙녀 연승대회전' 20국(최종국)에서 이창호 9단에게 249수 만에 백 반집 승을 거뒀다.

지지옥션배는 만 40세 이상 시니어 남자기사와 여자기사가 12명씩 팀을 이뤄 연승전 방식으로 우승팀을 정하는 대회다. 시니어 남자기사는 '신사팀'을, 여자기사는 '숙녀팀'을 구성한다.

이창호는 신사팀의 마지막 주자였기에 이민진이 승리하면서 대회는 숙녀팀의 우승으로 막을 내렸

다. 숙녀팀은 이번 대회에서 12승, 신사팀은 8승을 거뒀다.

이민진은 4연승을 달리며 대미를 장식했다.

이민진은 앞서 지난달 28일 안조영 9단, 29일 이성재 9단, 지난 5일 유창혁 9단을 꺾은 데 이어 이창호까지 잡아냈다.

이민진은 총 300만원의 연승 상금도 획득했다. 3연승에 성공하면 200만원의 연승 상금을 받고, 이후 1승을 추가할 때마다 100만원을 받는다.

지지옥션이 후원하고 한국기원이 주최하는 이번 지지옥션배는 총 규모 2억5500만원으로 열렸다. 우승 상금은 1억2000만원이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중랑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담보
2관	안한지드
3관	그린랜드
4관	국제수사
5관	담보, 디바
6관	담보
9관	피원아이치: 새로운 세계의 시작
7관 씨네커를	애프터: 그 후 죽지않는 인간들의 밤, 트롤킹
8관 씨네커를	법정, 검객, 디바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경계의 공간

GAC기획전시
경계의공간
2020. 9.1.(화) ~ 11.1.(일)
광주문화회관 갤러리

백건우와 슈만

회관 개관29주년 기념 특별기획
백건우와 슈만
2020. 10. 20.(화) 19:30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라흐마니노프

GAC기획공연 FOCUS
뮤지컬 라흐마니노프
2020. 10.16.(금) 19:30, 17.(토) 17:00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즐거움

문화산책

우주적 재난 블럭버스터
초대형 해상중돌 48시간

그린랜드